

성평등 수학 교수 프로그램을 위한 이론적 고찰

권 오 남 (서울대학교)

주 미 경 (이화여자대학교)

박 정 숙 (서울대학교 대학원)

오 혜 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 민 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 경 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은 정확하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이며, 장래의 직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세계화된 경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교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수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문화와 문명과 관련된 수학의 의미를 보여주어야 하며 수학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기술하고 해결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수학·과학에 대한 성취수준은 높았지만, 교과에 대한 흥미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신감, 협동학습능력은 다른 회원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학적 소양 점수에서 남녀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대한 남녀간 학력 차는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정도가 심하며 국가 인력의 지적인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서도 남녀 차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학 학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 중 하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능력이 모자라며 호르몬의 작용이나 유전인자에 기인한 생물학적인 제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학 성취도와 태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선천적인 성의 차이로 설명하기보다는 후천적인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별 불평등 현상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sex)라기 보다는 남녀의 사회적 역할(gender)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수학성취도와 이와 관련한 요인의 남녀 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국내 연구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도 부족하며 여학생을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성평등에 대한 문제는 미묘한 문제이고 최근 걸으로 드러난 시험 성적에서 성별에 따른 학력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다양성과 동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공헌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기초가 되는 분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여학생에 대한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나 지침들이 남

학생들을 경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여학생들의 능력과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여학생과 남학생이 동등한 위치에 놓여질 수 있을 때, 남학생들 또한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져서 교육 전체가 좀 더 성 평등적으로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성 균형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학생을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외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중재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분석을 기반으로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지 고찰해보고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